입력이 돼서 나오는데다 다시 입력을해라

☞ 21면에서 계속

했을 때는 지구가 안 돌아가나요? 이 세상만사가 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색은 공이요 공은 색이니라 했던 겁니다. 이 모두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데, 참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천하면서 관해 보고 물러서지 않는다. 믿는다. 자기 자성불을 믿어야지 뭘 믿습니까? 이름을 믿습니까, 허공을 믿습니까, 형상을 믿습니까, 중들의 고깃덩어릴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무식한 말로 예전에 어떤 사람이 "당신은 뭘 믿소?" 하니까 "내 주먹을 믿습니다." 이러더군요, 하하하.

그런데 그렇게 좌선이라는 것도 참선의 한 부분이요, 와선이라는 것도 한 부분이요, 행선이라는 것도 한 부분이요, 입선이라는 것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를 첨보해서 일상생활이 즉 참선이니라 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 보시지마는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리만큼 말입니다. 그 생각하면서 뛰는 것이, 뛰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며 그대로 여러분의 정신계와 물질계가 작용하는 바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참선이라는가. 일상생활 자체를 그대로 자기가, 즉 이 나뭇가지, 이파리, 이것이 그대로 뿌리 때문에 자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뿌리에다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모든 걸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것은 어디로 갔는지 뿌리는 생각지도 않고, 어떠한 종교를 막론해 놓고 바깥으로 이 가지를 붙들고 이파리를 닦아 주고 씻어 주고 온통 이름을 부르고 타의에서 구합니다. 그럭해서야 어떻게 공덕이 되겠습니까. 공덕이라는 것은 정신계 물질계가 서로 같이, 우주 전체가 같이, 이 지금 블랙홀이 돌아가듯 같이, 생명의 근본이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하고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이 주인공, 이 자체는 바로 생명의 근본이요, 마음 내는 거요, 마음을 내면 육신이 움죽거리는 거요, 이 삼합이 같이 작용하는 것을 주인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너의 주인이자, 주인이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해서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이름으로 지어서 주인공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다시피 아버지의 이름도 있고 남편의 이름도 있고 또는 형님의 이름도 있고 사위의 이름도 있고, 모두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에 의해서 "여보!" 하면 "왜 그래?" 하고 자동적으로 말과 뜻과 행이 그냥 남편으로 돌아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고 들어오면 금방 그냥 걸림도 없이 찰나에 그냥 "어디 갔다 오니?" 하면서 아버지 노릇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부모가 "얘, 아무개야!" 부르면 "예, 왜 그러십니까, 아버님?" 하고 천연덕스럽게 아들 노릇을 합니다.

그렇듯이 이 부처님 법도, 부처님의 마음으로써 지어 놓은 그 이름도 바로 동방에는 아촉이요, 서방에는 아미타요, 이 사바세계에는 관세음이요, 지천국에는 지장이요, 바로 이렇게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 놓지 않아도 여러분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그러면 이름이 오만 가지로 많아지죠. 그건 자동적입니다.

부처님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이름도 자동적으로 이름이 주어지는 겁니다. 칠성부처의 이름도 있고 약사부처의 이름도 있고 독성님의 이름도 있고, 용궁님의 이름도 있고 지신의 이름도 있고, 이름이 허다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름이 있듯이. 어떤 사람이 병고에 휘달려서 오면 그냥 화해서 약사가 돼 버리고. 여러분도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되고 "여보!" 그러면 남편이 돼 버리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선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참선인가. 실천 궁행하고 돌아가는 것이 참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좌선하고 또는 명상하고 단전호흡 하면서 자기를, 참자기를 찾겠다고 운운하는 거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이 땅을 걷다가 엎드러지면 어딜 짚고 일어나십니까? 어딜 짚고 일어나십니까? 땅을 짚고 일어나죠? 땅을 걷다가 땅에서 엎드러지면 땅을 짚고 일어나죠. 그거 기정사실입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거와 같이 여러분의 이 생활에서 일체 만법 천차만별로 나오는 데다가, 거기다가 되 맡겨 놓는 것입니다. 맡겨 놓고 관해 보면서,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이름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지켜보면서 또는 체험하면서 그리고 말하면서,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즉 여러분이 보살입니다.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왔고 중생 속에서 부처가 있는 거지, 어디 부처가 따로 있고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신계, 정신계" 하지만 정신계와 물질계가 어찌 따로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집을 짓는다고 마음으로 안에서 생각을 할 때 바깥으로 나와서는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다 해 놓고는 안으로 또 들입니다. 저거를 어떻게, 돈 출처와 모든 것을 어떻게 채비를 해야 집을 다 지을 수가 있는가 하고 안으로 들입니다. 안으로 들여서 바깥으로 또 냅니다. 집을 짓습니다. 이것이 집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에 여러분의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같이 돌아가건만 여러분이 이 생각 자체로서 정신계는 하여튼 모르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는 일이 없고 항상 이거를 '어떻게 돈을 벌어야 잘살 수 있나. 어떻게 자식들을 잘 가르칠 수 있으며 어떻게 잘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안 받고 살 수 있을까.' 그냥 오직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뿌리에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면 저절로 나무는 자라고 저절로 가지 이파리가 싱싱해질 테고, 열매가 스스로 열릴 테고 열매는 스스로 익을 테고, 제 나무에서 익어서 제 나무에서 맛을 내면서 온갖 사람들 한생각만 해도 모두 공덕이 되게끔, 그 물을 못 먹어서 갈증 나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면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 도리, 창조력이 있건만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를 막론해 놓고 '타의에서 구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떡이나 해 놓고 밥이나 해 놓고 빌고 목탁이나 치는 것이 중의 노릇이 아닙니다. 중이라는 것은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 그 가운데 바로 중입니다. 순색입니다. 불교라는 단어가 어느 한군데 국한돼 있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불이요, 정신계와 물질계가 서로 이 사생, 일체 우주 전체가 서로 교환하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따로 있고 불교 따로 있고 가톨릭교 따로 있고 통일교 따로 있고 원불교 따로 있고 티베트 불교 따로 있고, 죄 따로따로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그렇게 정해 놓은 거지 지구가 반쪽쪽쪽이 쪽쪽이 났습니까? 여러분은 한 치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이 지구가 버스라면 버스 안에 들어서 어디로 끌고 돌아다니는지 내다보질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도 어떻게 종교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쯤은 알아야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깥으로 끄달리고 신을 찾고 내 신은 팽개치고, 자기 자성신은 팽개치고 딴 신을, 이름 신(神), 그거를 찾느라고 온통 야단입니다.

내가 이 찾는 법을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죠. 여러분이 수박이라면 수박씨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작년 수박씨를 올봄에 심었는데 심은 것이 싹으로 화했습니다, 씨가. 인젠 씨가 아닙니다. 싹으로 화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그 싹에서 수박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익었습니다. 익었는데도 아, 이 씨가 싹으로 화했는데도 불구해 놓고 내가 나오기 이전 싹, 씨를 찾느라고 바깥으로 온통 야단들입니다. 그게 되겠습니까? 일단은 나의 안에, 수박 안에 씨가 들어 있는 거를 탁 잘라서 그 수박 맛을 봐야, 수박 맛을 볼 줄 알아야 그 씨도 거기서 나오죠. 그럼 그 씨를 되심어서 이 일체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또 그 씨는 되남습니다. 영원토록 말입니다. 이게 공덕입니다.

이게 천체가 내 손 아님이 하나도 없으며 내 도량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아픔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몸 아님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나 아님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응해 달라고 염원하면, 그냥 이 마음의 주인공을 염원하고 모든 걸 거기다 맡겨 놓으면 아버지 노릇 하고 남편 노릇 하듯이 자동적으로 찰나찰나 들고 나면서 바로 한마음으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용광로에다가 쇠나 뭐, 이런 거 넣으면 자동적으로 새 쇠로다가 생산이 돼서 나가듯이 말입니다.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이 세상 팔만대장경을. 바로 이 세상 돌아가는 게 팔만대장경입니다.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끼리끼리 모여 있습니다. 시장 바닥을 가 봐도 끼리끼리 상점에 놓여 있고 금방에 가 보면 금이 모여 있고 또는 무쇠전에 가 보면 무쇠만이 모여 있고 넝마전에 가 보면 넝마만 모여 있고 빈 병전에 가 보면 빈 병만 모여 있고, 허허허….

사람들도 모두 끼리끼리 모여서, 상인은 상인들대로 모이고, 안 그렇습니까?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이고, 차원의 그릇대로요. 친구들을 이렇게 사귀어도 자기 알맞는 그릇대로 사귑니다. 이게 끼리끼리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끼리끼리 돌아가고 있지만 모든 거를 본다면 둘이 아니게 또 돌아가고 있으니 둘이 아닌 까닭에 바로 너가 있고 내가 뚜렷하게 있구나 하듯이 말입니다.

이 세상만사가 다 그러한 것이니까 똑똑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종교라는 이름, 이 자체가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바로 여러분부터 알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러한 말을 해서 그만, 그때는 미거한 어리석은 시절이 돼서 약사발을 안겼지마는, 달마 대사도 그러했고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복으로 돌아가는 이 법은 조선 시대 초기 때부터 중간으로 들어서면서 탄압을 너무 세게 받은 터라 스님네들이 공양미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니까 여기 놓고 빌고 저기 놓고 빌게끔 해 놨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관습으로 돼서 오늘날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교뿐만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도 그렇고 가톨릭교도 그렇고 모든 게….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가 잘못해 놓고도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합니다. 이것이 모두 가식입니다. 자기가 뿌려 놓은 거 자기가 거둬야지 어디 가서 하소연한다고 그 뿌린 것이 해결이 됩니까?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흑인이 흑인을 낳지 백인을 낳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저께, 그렇게 알면서도 '참 철두철미하구나! 어쩌면 이렇게 철두철미할까.' 흑인이 어린애를 낳아서 까만 사람이 까만 아이를 끌고 가면서 까만 초콜릿을 먹이면서 가는데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속으로. '허허, 세상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어쩌면 저렇게 한 치의 에누리도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세상만사가 다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인식을 하면서도 다른 거는 또 생각지 못합니다. 하나하나 내가 마음먹고 행하고 하는 것이 입력이 된다는 것을요.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자동적으로 요다음 생에 다시 진화돼서 바뀌 나올 때 바로 모습을 어떤 걸로 가져 나와야 될까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죠. 물론 우리 같은 사람은 지렁이가 되든지 구더기가 되든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말입니다. 삶은 다 똑같으니까. 차원이 다르고 모습이 달라서 그렇지.

다음 호에 계속

> 정신계 50%와 물질계 50%를 같이 상응하면서
> 같이 작용하는 그런 자유스러운 삶이 돼야만이
> 불자라고 하며 사람으로서 산다 할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92년 7월 26일 국외 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해양심층수 100%로 만든 청정, 안심 건강소금
MQ해양高미네랄로 가족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의 깨끗함과 건강을 담았습니다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세트



MQ해양고미네랄은..
– 강원도 고성에서 100% 해양심층수로 탄생한 고미네랄 소금
–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담은 MQ해양고미네랄
– 일반 정제염 대비 마그네슘 380배, 칼슘32배, 칼륨 49배 등 풍부한 미네랄 함유
– 일반 정제염 대비 나트륨이 23% 이상 적은 저나트륨(염도75%) 소금
– 한포(3g)를 물(500ml)에 타서 마시면 경도 1,000이상의 고미네랄 워터로 변신하는 미네랄 워터용 소금

제품구성 MQ해양 고미네랄 스틱 2박스 (31포 x 2박스) + MQ해양 고미네랄 1병
특별보급가 75,000원

엠큐 눈소금 세트



매일매일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미네랄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엠큐눈소금, 매일 모든 음식에 넣어 먹는 소금을 바꿔 건강을 지키자!
해양심층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해양심층수 100%를 사용하고, 순간공중결제염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소금 엠큐눈소금은 요리의 맛을 살려주고 건강을 드립니다. 엠큐눈소금으로 온가족의 맛있는 식사와 건강을 지키세요.

제품구성 고운소금 150g x 2EA + 굵은소금 125g x 1EA = 425g
특별보급가 52,000원

김오곤원장의 엠큐 해양 高 미네랄 침향





세계 3대 향중의 하나로 불리는 그 귀한 침향,
김오곤한의사의 배합기술로 엠큐눈소금과 만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으로 탄생

– 건강을 한번 더 생각하고 만든 미네랄과 침향제품으로 성분과 맛이 입증
– 김오곤한의사의 엄선한 배합 기술을 토대로 탄생한 한방과 과학이 어우러진 제품
– 낮은 염도, 고미네랄 그리고 침향이 한 포 한 포에 들어 있는 제품
–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 깨끗한 미네랄의 참 맛, 침향의 건강한 향과 맛까지 포함한 신개념 제품
– 한 포 (3g)을 물 500mL에 타면 맛있는 고미네랄 침향 워터로 황홀한 변신

제품구성 279g (3g x 93포) / 원재료 : 소금 93% (해양심층수 100%), 침향 7% (인도네시아 수입산)
특별보급가 125,000원

※순간공중결정제염기술이란? 해양심층수를 미세한 안개 상태로 쪼개어 공기중에 분사한 후, 열풍을 불어 넣어 수분을 순간적으로 증발시키는 기술로 이렇게 해서 해양심층수의 수분을 제외한 모든 미네랄을 소금에 포함시키고, 눈처럼 아래로 떨러뜨려서 소금을 제조하는 기술

구입처 :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문의 : Tel 1688-9099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